

모실개 이칩조상본이우다.  
 옛날 짐씨 할으방이  
 과거보레 육지에 간  
 중간 주막에서  
 흐룻밤 유숙하게 되였수다.  
 주막에서 흐룻밤 유숙하고  
 붉는날은 과걸 보완  
 돌아오는디,  
 주막에서 만난 이씨할망이  
 할으방 조름에 종가가난  
 할으방은 양반의 처제에  
 드랑 올 수 엇언,  
 심는 창옷섰을 털뜨리난  
 이씨할망은  
 대홍단 저고리 골름을  
 그차 댕기난,  
 그게 짐씨할으방은 활 내연,  
 훈디,  
 할망이 지주절섬궂지  
 돌환 오랏수다.  
 그 뒷해에 이씨할망은  
 빙난 죽어신디,  
 훈 해엔 짐씨할으방이 아판,  
 어딜 간 문점을 허난  
 “이씨할망이 들언 조애우댄”  
 허난,  
 그게 이칩조상으로  
 우망하게 됩네다.

<제주시 건입동 남무 76세 이달춘님>

진성기, 『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』, 민속원, 1991, pp.696-697.